

매경추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해리포터’에 폭 빠져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비슷한 또래의 내게도 그런 책이 있었다. 바로 추리소설 ‘셜록 홈스’(아서 코난 도일 지음) 시리즈다. 저자는 이 작품들을 통해 많은 명언을 남겼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 이론화하는 것은 큰 실수다(It is a capital mistake to theorize before one has data)”라는 문구는 다시 읽어도 인상적이다.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작품 속에 녹인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디지털 시대’의 ‘셜록 홈스’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검토방안

중 하나는 정부, 기업, 학계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들고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만이 올바른 방향타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사회 문제는 상호 연결돼 있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개개의 현상은 데이터로 표출된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져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숙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행정자료와 금융, 이동통신 등 민간기관 자료를 비롯해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모두 데이터로 활용되는 시대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들어 작성하는 통계의 중요성 역시 말할 필요도 없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

는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실시하셨다. 오랜 가뭄으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한 신규 토지세제 도입을 앞두고, 백성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이 부분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모두를 방문하여 가부를 들으라(悉訪可否以聞)”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민가의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묻는(問)’ 것이 아닌 ‘들으라(聞)’고 분명하게 지시하셨는데,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달 18일까지 통계조사원 3만명이 국

민의 말씀을

디지털 시대 ‘셜록 홈스’ 위해

‘듣고자’ 조사 대상 가구의 문을 두드

릴 것이다. 역사 속 세종대왕 사례를 통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정확하게 측정돼야만 복지·돌봄·주거·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인구·고용·물가·경제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조사의 결과도 이 시대 셜록 홈스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법을 찾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